

#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9. 6. 16 ~ 2019. 6. 29 제206호



▶ 키르기스스탄 수사르 고원

제공: WMM

##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키르기스스탄의 고산지대인 수사르 고원. 90%가 산지로 이루어진 이 땅은 높은 산들과 초원들로 산악지대가 많다. 해발 2500m에 위치한 이곳은 '수사르'강이 흐르는 유목민들의 여름 목초지이다. 이곳 날씨는 변덕이 심하다. 해가 떴다가도 금방 구름이 하늘을 덮는다. 그날도 그랬다. 해가 떴다가 흐려지더니 보슬비가 내렸다. 그리고 어느새 무지개가 떠 있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호흡이 있

는 모든 피조물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리고 심판 후에 무지개를 나타내시고 노아와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처럼, 무지개를 통해 그분의 뜻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셨다. 그리고 마침내 예

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다. [GNPNEWS]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창세기 9:13~15)

“세상의 미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 중국, 15개 가정교회 폐쇄 잇따라

중국 가정교회가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로 폐쇄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에서 14년간 경찰의 핍박을 받아온 한 가정교회가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최근 폐쇄됐다고 중국 종교자유 전문매체인 비터윈터 매거진이 최근 전했다.

5월 12일, 중국 남동부 푸젠성 푸저우시 구러우(鼓楼)구에 소재한 항공빌딩 내 집회소에서 30명이 넘는 정부 요원들이 보초를 서고 성도의 출입을 막았다. 설상가상으로, 20명이 넘는 경찰이 집회소에 들이닥쳐 모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집회소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또한 경찰은 성경책과 찬송가를 포함한 서적 200권 이상을 압수했고, 이후 교회 장로들과 몇몇 동역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한 성도의 말에 따르면, 민족·종교사무국 공무원이 “나는 사상 담당자로서 사람들이 공산당을 믿게 하는 것이 내 임무다. 보스를 바꿔라(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뜻), 공산당에 가담하라.”고 성

도들을 향해 말했다. 경찰은 교회문을 닫은 다음 성도들이 교회에 폐쇄된 것을 알 수 있도록 입구에 폐쇄 공고문을 붙였다.

차이나에이드(ChinaAid)에 따르면, 공휴일인 어머니의 날(올해는 5월 14일)에 최소 15곳의 다른 가정교회가 폐쇄조치 됐다. [GNPNEWS]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일서 3:13~14)

**기도 | 중국교회의 끊임없는 박해 소식**이 들려오지만, 더욱 예수의 생명으로 강건케 해주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원수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오히려 그 사랑을 맞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81)

##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거쳐 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교회는 착한 사람이 다녀야죠.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알면 아마 교회에서 내 쫓으려 할 겁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교회는 당신 같은 분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실은 교회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저도 그들 중 한 사람이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논금만큼도 없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왜 모였나구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지은 죄를 용서받으면 됩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이런 저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줄 아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사람의 조상 아담이 물려준 죄성 DNA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죄를 ‘덜 짓고, 더 짓고’ 할 뿐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지옥 갈 형편입니다.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



일러스트=김경선

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 예수에게 쏟아 부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을 택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사신 예수를 당신의 새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 되셔서 천국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구원받는다  
뜯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한 장씩 뜯어서 전하는 **전도편지**

뜯어서 읽는 전도편지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킨과 보아즈 032-887-0235**  
[www.jakinnboaz.co.kr](http://www.jakinnboaz.co.kr)

복음의소리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 러, 반테러금지법으로 2018년 선교사 기소 159건



▶ 러시아 현지 교회 예배의 모습(사진=복음기도신문)

러시아에서 기독교 핍박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정교회를 금지하는 '야로바야 법(Yarovaya Laws)' 때문이라고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최근 밝혔다.

야로바야 법으로 불리는 반테러 금지법은 개신교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 건물 이외에서의 종교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숙 폴리 한국순교자의소리 대표는 "(이 법은) 선교사들에게도 적법한 허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지 한다."고 설명했다.

다. 이어 현숙 폴리 대표는 "야콘도프(Akhundov)라는 침례교 장로는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사람을 집에 초대해 함께 예배드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기독교 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준 혐의로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며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건을 주목하고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선교 전략을 세울 때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종교 자유에 관한 뉴스를 전하는 '포럼18'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2018년 한 해에만 기독교 선교사를 겨냥한 기소 사건이 159

건 일어났다. 하지만 "기독교 선교사들을 겨냥해서 기소하는 러시아의 이런 상황을 한국 기독교 매체에서 뉴스로 다룬 예는 5건 미만"이라고 폴리 대표가 지적했다. 159개 기소 사건 가운데 한국인이 관련된 것은 1건이다.

폴리 대표는 "한 이단 단체 소속의 여성 선교사가 기소됐다."면서 "비록 이단이지만 자신의 종교 단체에 회원으로 끌어모으기 위해 종교에 관한 정보를 퍼트렸다는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려고 거기에 간 것이기에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VOM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러시아를 '특별우려국'으로 분류하는 데 참여하는 한편, 러시아 기독교인들이 이런 핍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순교자의 소리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과 협력해서 사역해왔다."며 "한국의 선교단체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러시아의 상황을 자세히 주시해달라."고 요청했다. [GNPNEWS]

## “동성애 탈출에 도움을 준 곳은 교회였다”

‘자유 의 행진’에서 20년간 동성애 탈출기 간증

20년간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미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긴 방황을 끝낼 수 있게 도와준 것은 교회였다고 최근 워싱턴 실번 극장 앞에서 진행된 ‘자유 의 행진’ 행사에서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간증한 자넷 보이네스는 4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총 7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를 길러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어머니를 육체적으로 학대했다. 그 학대는 어머니를 통해 그녀에게도 이어졌다.

그녀는 어머니를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 때문에 특히 흑인 남성에게 대한 깊은 증오심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다른 소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녀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하



▶ 지난달 25일 워싱턴 D.C 실번 극장 앞에서 진행된 '자유 의 행진'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사진: lifesitenews.com 캡처)

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알지 못했고 스스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면서 "스스로 마귀에게 붙잡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지 14년 후, 새벽 3시에 한 식료품점에서 말을 걸어오는 기독교인 여성을 통해 교회에 나간 그녀는 다시 주님을 찾았다. 교인들은 그녀를 있는 모

습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녀는 “그들은 나를 걸모습이 아닌 속부터 사랑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긴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교회였다.”며 “하나님께서서는 절대 수치심과 잘못으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는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증거했다. [GNPNEWS]

## GPM 전도용 복음드라마, 굿TV 통해 방송돼

본지를 발간하고 있는 미디어 선교단체 복음과기도미디어(GPM)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복음드라마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기독교 케이블 채널 굿TV에서 최근 임시편성으로 몇 편이 방영됐다.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학생이 진화

론을 주장하는 교수와 토론을 벌이는 내용을 다룬 '당신의 기원'등이 5월 말 이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탔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펼쳐진 이야기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드라마는

격주 간격으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GPM은 미디어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영역의 동역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 070-7417-0408 gnmedia@gnmedia.org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5. 27 ~ 6. 8)**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한시적 운영**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게 특정 종교나 종교활동 강요는 인권침해라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복음을 전하고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요라고 규정하고 법으로 규제하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운 정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성추행 신고 10대 '불태워 보복살해'**  
방글라데시에서 교장에게 성추행 당한 10대 여학생이 교장을 고소하는데 대해, 교장이 고소를 철퇴하라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고소 철퇴를 거부하자 10여 명의 남성들이 여학생의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4일 만에 숨졌다고 30일 BBC뉴스 등이 보도했다.

**주님, 드러난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생명도 빼앗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방글라데시의 교장과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시라,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프간, 작년 학교에 대한 공격 3배 가까이 늘어**  
18년째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해 학교에 대한 공격이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 2017년 68건에서 2018년 192건으로 급증해 작년 말까지 학교 1000곳 이상이 문을 닫아 어린이 50만 명 이상이 학습권을 빼앗겼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나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소와 친구들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로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 주셔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아프간 아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브라질 교도소 폭동으로 55명 사망**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의 주도(州都) 마나우스시에 있는 아나지우 조빙 교도소(Compaj)에서 교도소 수감자들 간에 과열분위기가 폭동으로 번져 55명이 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하나님, 개선을 위해 들어간 교도소에서 폭동을 일으킨 죄수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어떤 감옥보다 두려운 자아의 감옥에서 견뎌내어 생명을 주신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6월 17일 ~ 6월 29일

- 6월 17일 ~ 6월 22일** ▶경기 안산 / 안산동산교회(김\*\*)010-2820-7312, ▶전남 장성 / 동부교회(백\*\*)010-5078-7445,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경기 부천 / 산돌교회(박\*\*)010-9527-2468, **6.17~18(10~20시)** ▶인천 서구 / 사랑교회(엄\*\*)010-5657-9191, **6.18(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6.18~19(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교회(김\*\*)010-3290-4316, **6.18~21(14~16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6.19(06시)~6.20(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6.21(10시)~6.22(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황\*\*)010-7766-3100, **6.21~22(10~22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그외 9교회 진행중.

- 6월 24일 ~ 6월 29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4501-0059,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윤\*\*)010-4916-1263, ▶경기 성남 / 새마음교회(조\*\*)010-3888-6800, ▶경기 광주 / 문광교회(최\*\*)010-3380-5781, **6.23(12~24시)**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임\*\*)010-2276-8221, **6.24~25(10~17시)** ▶강원 원주 / 속초동명교회(김\*\*)010-7423-4953, **6.24~28(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6.25(06~18시)** ▶강원 원주 / 남원주교회(윤\*\*)010-4916-1263, **6.25, 6.27(10~12시)**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김\*\*)010-6269-4821, **6.27~29(09~15시)** ▶강원 춘천 / 샘물교회(이\*\*)010-8856-7726, **6.27~29(09~18시)** ▶경기 고양 / 대화사랑교회(김\*\*)010-4058-0675 그외 10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 마법의 '환각 버섯' 마약, 덴버市 미국 최초로 허용

미국 덴버市가 향정신성 마약성분 실로시빈이 함유된 이른바 마법의 버섯(Magic Mushroom)이라 불리는 '환각 버섯' 사용을 최초로 지난 5월 통과시킨 가운데 그 위험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다음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한 사이트 TV넥스트는 마법의 버섯 발의안 301이 덴버시 주민투표에서 찬성 50.6%로 가까스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환각 버섯은 부작용과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TV넥스트는 이런 위험 요소를 숨기고 '환각 버섯'의 합법적 사용 허가를 마치 '자유화'의 상징처럼 상품화하고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도, 사회와 다음세대를 고려하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환각 버섯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울증과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며 술이나 담배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버섯을 몰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숨어서 사용하지 않게 되어 버섯



▶ 향정신성 마약성분(환각 물질) 실로시빈이 함유된 '마법의 버섯'(출처: roselaw-groupreporter.com 캡처)

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더 넓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증,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80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존 홉킨스대의과대학 및 뉴욕대학 라곤 메디컬센터가 진행한 환각 버섯 임상실험 결과 약 80%가 죽음을 앞두고도 낙관주의 성격으로 변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됐으며, 그 효과는 6개월간 지속됐다고 포스트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심리학 저널(Journal of Psychopharmacology)은 이 환각 버섯이 가지고 있는 실로시빈 요소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마약 단속국의 '마약 중독성 범주'에 의하면 환각 버섯은 높은 중독성이 있는 마약으로 분류된다. 환각 버섯 안에 있는 환각 성분들은 절대 없이 사용될 경우 공황발작과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

한 메스꺼움과 구토, 근육 약화, 일상생활 조정능력 결여,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 덴버,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관련 사망자 151% 급증

한편, 마법 버섯의 합법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마리화나를 긍정적으로 홍보하여 '오락용'으로 제일 먼저 합법화시킨 덴버시와 콜로라도주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상할 수 있다.

콜로라도 교통부에 따르면,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마리화나 관련 사망자는 55명에서 138명으로 15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주 교통사고 사망률은 겨우 3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콜로라도 크리스천대학의 보수 싱크탱크인 센티니얼연구소 제프 헌트 소장은 "덴버시민 투표에서 환각 버섯에 찬성하는 주장은 대부분 이전의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지지하는 논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부작용을 물어 버리고, 담배와 아편처럼 미국인의

한 세대를 중독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TV넥스트는 "환각제, 마약, 아편 같은 약물은 특별히 어린 나이에 시작했을 때 중독으로 이어지며, 중독은 한 개인의 과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까지 엄청난 파괴적 파급 효과가 있다. 더군다나 마약 합법화를 통해 청소년과 어린이들까지 사용이나 구입이 용이해진다면 그들 신체와 정신, 마음에 임혀질 씻을 수 없는 타격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자녀와 다음세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법안들이 절대 세워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는 주님의 용사들로 계속 중보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환각 버섯 사용과 관련한 발의안은 오레곤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NPNEWS]

# 프랑스, 2018년 한 해 교회 파괴 행위 800여 건

프랑스에서 작년에만 875개의 교회가 파괴됐으며 129건의 기독교인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한 국회의원은 일찍이 매일 최소 두 개의 교회들이 신성모독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교회에 대한 반달리즘(문화·예술 및 공공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적 악행들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정치인들이 자국의 기독교 문화유산이 '폭력적인 세속주의'에 영향을 받은 폭력배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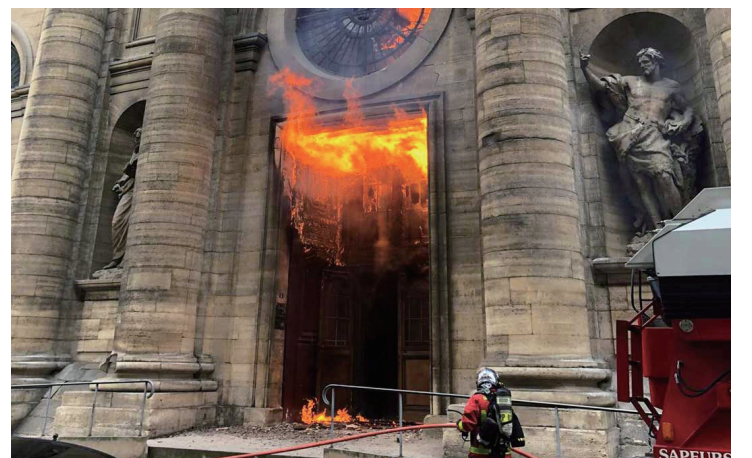
최근에는 '파리지앵 세인트 솔피스(the Parisian Saint-Sulpice)' 교회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을 비롯

하여, 님(Nimes)에 있는 교회의 벽에 칠해진 배설물, 세인트 데니스 바실리카의 오르간 훼손 등이 줄을 이었다.

2014년 6월 28일자의 이 사진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펜바흐에서 베일을 두른 여인들이 설교자 피에르 보겔(Pierre Vogel)의 설교를 듣고 있다. 이슬람 문화에서 쓰는 니캅(niqab)과 부르카(burqa)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2017년 10월 1일, 오스트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아주 소수의 무슬림 여성들만이 오스트리아에서 베일을 두르는데, 그들은 우파 정당과 단체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

프랑스와 벨기에도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으며, 우파 단체 중 하나인 독일의 내셔널리스트 얼터너티브(the Nationalist Alternative for Germany party)는 독일에서도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팔레스타인 성직자는 세인트 솔피스 교회 방화사건을 언급하며, 지하드가 프랑스를 무슬림 국가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공화당 대표인 로랑(Laurent Wauquiez)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비판하면서 "세인트 솔피스는 그저 한낱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이다.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은



▶ 파리지앵 세인트 솔피스 교회 화재 현장(출처: joynews.co.za 캡처)

이제 충분하다."고 말했다.

## 유행처럼 번져가는 안티 기독교적 반달리즘 행위

공화당 의원인 발레리 보이어(Valerie Boyer) 또한 "매일, 최소

한 두 개의 교회가 신성모독을 겪는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인 애니 장발드와 필립 고슬링 역시 이러한 안티 기독교적 반달리즘 행위에 대해 의회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GNPNEWS]

# 수만 명 멜라네시아 파푸아 토착민 거주지에서 추방

인도네시아 동남부에 위치한 파푸아에서 2018년 12월에 시작된 군부의 탄압으로 3만 2000명의 멜라네시아 파푸아 토착민들이 거주지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인이다.

많은 이들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9명의 여성들이 출산을 했으며 음부아(Mbua)에서는 두 명의 어린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보안 부대인 TNI

에 의해 총살당했다. TNI는 응두가(Nduga) 전역에 걸쳐 최소 34개의 학교 및 교회들을 파괴했다. 또 시온 지케이아이 마펜두마(SION GKI Mapenduma) 교회를 장악하여 군사기지로 삼았다.

여기저기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은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산탄통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TNI가 헬리콥터에

서 황린이 포함된 폭발물들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물론 TNI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TNI는 이제껏 발생한 모든 공격행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자신들에 대한 모든 소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에 위치한 파푸아뉴기니와 달리 19세기에 네덜란드 영토였던 서파푸아 지역은 1969년 인

도네시아가 유엔 등을 통해 주민투표를 거쳐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후 파푸아 주민들은 분리독립운동을 계속하며 수십 년째 정부군과 충돌 중이다.

서부 파푸아를 위한 자유연대운동의 대표인 베니 웬다(Benny Wenda)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파푸아인들에게 향후 예정된 총선에서 보이콧을 외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그들의 영토에서 선거를 치를 권리를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거에 대한 강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이곳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고문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 파푸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은 이처럼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GNPNEWS]

번역=복음기도신문 국제팀

기획 | 창조 이야기(17)

# ‘창조 첫째, 둘째 날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 이단사상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창세기 1장 5절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말씀한다. ‘첫째 날’에는 영어 정관사 ‘the’가 붙어 있다. ‘바로 그 첫째 날’이란 뜻이다. 그런데 RSV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였다”라고 쓰여 있다. ‘바로 그 첫째 날’은 어디로 가버렸나? 역사상 ‘첫째 날’은 하루밖에 없다. 그리고 ‘하루’는

매일이다. 왜 ‘하루’라고 썼고 8절에서는 ‘바로 그 둘째 날’이 아니라 ‘하나의 둘째 날’이라고 썼을까 궁금했다. 이 번역본을 쓴 사람이 문자 그대로의 6일간 창조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아무런 근거없는 ‘간격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격론’을 믿고 있다. 간격론은 1814년에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토마스 차머스라는 사람에 의해 등장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이 있다.”고 말했다. 1800년대까지는 아무도 간격론을 생각하지 않았다.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95년에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라는 책이 등장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믿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도록 해야겠다고 타협해 버렸다. 간격론, 시대론, 점진적 창조론. 그중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이단사상 중의 하나가 이 간격론이라고 생각한다.

간격론은 이렇게 주장한다. ‘창세기의 첫 두 구절 사이에는 모든 지질 시대를 위한 광범위한 범위가 있다. 아담 전 시대에 반항이 있었으며 루시퍼의 심판이 있었다.’ 그럴 수 없다. 아담 전에 누가 있을 수 있나? 루시퍼가 정확히 언제 심판받아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는 히브리어로 ‘토후 와우 보후’로 읽는다. 이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파괴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이 파괴되었다는 뜻일 필요는 없다. 예레미야서도 같은 구

절을 사용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렘 4:23) 이 경우에 파괴된 도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렘 4:25~25) 이것은 창조와 무관하다. 새는 다섯째 날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판받은 도시에 관한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옛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말씀이다. 여기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천사들과 심지어 루시퍼까지도.

### 창조 전 타락은 비성경적 주장

문제는 성경의 표현보다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느냐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루시퍼가 창조 전에 타락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구절과 충돌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고 쓰였다. 만약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었

다면 이것은 일곱째 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일곱째 날을 가르치고 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고 말한다. 성경은 ‘일곱째 날에’(창 2:3)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일곱째 날에’라고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사단이 아담 이후에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롬 5:12)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롬 5:14)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고전 15:21)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아주 분명하다. 만일 간격설이 사실이고 아담 전 시대에 문명이 있었는데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그들이 죽었다는 이론은, 죄를 짓기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완전히 이단사상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사망이 원수라고 한다. <계속> [GNPNEWS]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론적 진화론
지구와 우주의 나이	6000년 창세기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와 동일함	6000년 보다 훨씬 오래 되었음	우주 약 138억 년 지구 약 45억년 추정
생명의 출현	일시적 창조	진화는 아닌 점진적 창조	진화를 통한 신의 창조
성경에 대한 입장	문자 그대로 사실	문자적 해석은 곤란	문자적 해석은 곤란

▶ 각종 창조 기원에 따른 주요 쟁점 비교



## 선교 통신

### 가족행사로 전락한 교회 출석... 말씀의 능력 회복 절실한 필리핀

가톨릭이 전 국민의 80%에 가까운 필리핀의 거리 전광판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 타는 차마다 십자가가 중앙에 세워져 있고 기사들은 차를 운전하는 동안 수시로 십자가를 만지며 기도한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공공장소에서 예배가 드러진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이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박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자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보여지는 거룩함에 속을 때가 많다.

그들이 매주 성당이나 교회에 가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전통을 따라 부모님이 가톨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은 하나의 익숙해진 행사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거나 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기복 신앙이다.

이곳은 낙태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실상 낙태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적으로 문란하다. 술, 담배, 동성애 등 유흥에 빠져있어도 죄책감이 없다. 이것은 필리핀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은 문화라고 포장되었지만 철저하게 성경을 거스르는 죄 된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교를 위해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유학생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필리핀 유학생들의 현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자신의 삶과 성경이 말하는 삶을 비교하면서 회개하며 매일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대견하다. 술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술을 안 마신다고 선포해 비웃음을 받는 청년, 학교생활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며 생활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인지 말씀 앞에서 깨닫고 자신의 불편함을 뛰어넘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청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청년, 말씀 앞에서 삶을 돌이

키는 청년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 이 땅에 많은 유학생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 금주를 선언한 청년, 놀림감 되기도

현지인 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 또한 가톨릭에 익숙해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몇몇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라 사람들은 특성상 깊이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고 단순하다. 어느 정도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시스템이 없다. 이런 와중에 이단교회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교회의 명패는 있으나 버려진 건물들도 많고 교회는 있으나 사역자가 없는 교회도 많다. 생활이 보



▶ 마을 종택의 교회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사진=복음기도신문)

장되지 않아 사역자의 사명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곳에 필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일이다. 성경을 읽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이들은 성경을 동화책같이 여기고 자신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일 말씀을 읽도록 훈련하고 있는 일에 중요성을 느낀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

가고 있다.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강하게 세우시는 것을 보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GNPNEWS]

필리핀=김효영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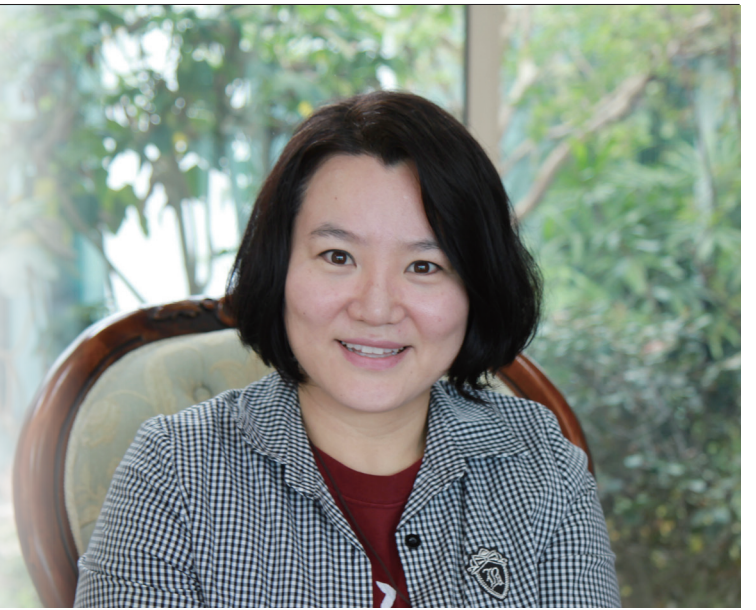
####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아픈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쁜이”

복음의 영광으로 빛나는 장선화 집사(삼성연합의원)



경북 의성 읍내에 위치한 이 병원은 아침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북적인다. 대변검사라도 있는 날이면 커다란 검정 비닐봉지에 변을 한가득 담아 접수창고에 내는 일은 다반사다. 그곳에서 장선화 집사는 ‘이쁜이’로 통한다. 병으로 아픈이들을 돌볼 뿐 아니라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 집사를 만났다.

-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으시게끔 손발이 되어 심부름도 해드려요. 청소, 빨래 기타 등등 필요한 모든 곳에서 일해요. 환자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요,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을 걸게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관심을 갖다보면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눈에 보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도와드리죠.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저에게 마음을 조금씩 여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도 “3층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 영상도 보고 예배도 드리자”고 권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이쁜이 때문에 간다.”라고 해주시기도 해요.”

- 이런 섬김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네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죠?

“성경공부를 통해 알게 된 권사님의 초대로 병원에 오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이 병원에 오면서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었죠.”

장 집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선교사는 선교사니까, 목사님도 목사니까 그렇게 사는거지.’라며 평신도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평신도로서 병원을 선교기지로 내어놓고 선교사로 살고 있는 김정화 권사를 만났다. 충격이었다. 김 권사가 만난 예수님은 그의 삶을 전부로 드러 순종할만한 가치였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고민도 했지만 그런 삶이 너무 사모되었다. 그 무렵 김 권사에게 병원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장 집사는 짝사랑하는 대상에게 고백을 받은 기분이

었다고 회고했다.

##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싶어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는 고백처럼 들렸어요. 사실 주님은 병원에 오기 전까지 제가 마음껏 순종할 수 있도록 신앙의 터를 닦아 주셨어요. 대전에서 거주하면서 신앙훈련과 복음학교 훈련을 쉬지 않고 받았어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도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 시간은 저에게 ‘온실 속 화초’같은 시간이었어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무엇을 하든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병원에 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쓰레기와의 싸움이었고, 가래침과의 싸움이었고, 변과의 싸움이었어요.”

- 듣기만 해도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어땠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변기를 수세미로 다 닦아내야 했어요. 처음엔 이런 것들이 저에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다지 어렵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 오물보다 더 더러운 자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커다란 재떨이를 비우다보면 담배꽂초와 가래침들이 뒤섞인 오물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하수구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하수구를 뜯었는데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순간 불평이 생겼어요. ‘내가 오기 전에도 이런 청소를 했나? 왜 내가 오니까 하지?’ 그러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선화야. 너 그 깊숙한 곳에 더러운 것 있잖아. 이 하수구보다 더 더러운 그곳. 선화야, 난 더 깊숙이 있는 그것도 닦아내면 좋겠어.” 그리고 그 깊숙한 더러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 일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는군요. 감동입니다. 삶속에서 깨달은 진리들을 좀 더 나눠주세요.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제 것이 아닌 것들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삼푸, 일회용 비닐 같은 것을 제가 맘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하수구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함부로 내 소유로 여긴 일들이 생각났어요. 청소를 마친 후 주인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 하나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며 닦아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환자들을 섬기며 받는 칭찬이었어요. 주님 생명으로 하는 섬김이긴 한데 이 칭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몸에 붙는 것 같았어요. 어느덧 그 칭찬이 예수님을 빙자해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 하수구 청소하다 죄 된 실존 깨달아

-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셨군요?

“제가 복음학교 훈련을 받고 난 이후 십자가 목걸이를 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목걸이를 하기도 걸고 쉽지 않았죠. 길거리에서 침을 함부로 뱉을 수도 없고, 환자 단 한 명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

너무 속상했어요. 이렇게 다시는 육신으로 행하지 않게 주님이 각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 예수님이 스며드는 삶이란 말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건 어떤 삶이죠?

“내 마음에서 주님을 일부러 밀어낸 날에는 반드시 물으세요. “너 나 없이 행복했니?” “아니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 삶을 보잖아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밀어내는 삶 말이예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때는 신나고 달콤하죠.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에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너무 죄송하고요. 그럴 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성령님과 교제하는가. 계속 초점을 맞추게 돼요.”

-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된 것 같지 않은데 신앙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런 삶이 가능한 건가요?

저녁에 와서 주님께 직고하고 남편과 나눕니다. 복음스터디를 하고 복음일기를 쓰고, 또 아침을 맞으며 말씀을 묵상하죠. 남편은 출근하기 전 입원실을 돌며 기도를 해요. 환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 알코올 중독에서 예수님 만나

- 네. 그럼 전쟁터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인간 장선화로 할머니들을 보면 냄새가 나서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소변 줄 끼고 계신 분 옆에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비위가 많이 약하거든요. 저는 그 어떤 선행이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육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육을 하나도 안하면서 굶은일을 할 수 있는 건 진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 비위도 사치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주님이 다 견어 가세요. 복음이면 얼마나 가능한지! 그러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활동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를 살다보면 너무 몸이 고되거든요. 그럼에도 환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넘쳐나요. 하루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할머니에게 교회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같이 가자.”하시면서 같이 수요일 예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병원에는 안환자도 몇 분 계시죠. 예수님을 안 믿는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려드릴 수 있는 곳이 여기구나 깨닫게 됐어요.”

- 병원이 정말 선교지네요.

“복음이 아니면 이런 삶은 불가능했어요. 저는 사람을 때리고 욕할 줄밖에 몰랐고, 세상을 저주했고 가족을 저주했어요. 3년 반을 따라다녀 결혼한 신랑도 사랑이 아닌 내 소유인 양 집착으로 대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짝 짜면 썩은 진액만 나올 수밖에 없는 저주 받아도 마땅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GNPNEWS]

H.M.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병원에서 환자들을 섬기고 있는 장선화 집사

어요. 목소리도 사납게 낼 수 없죠. 왜냐하면 저의 어떠한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먹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목걸이를 걸고 다니다보니 예수님이 저에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잊어질 때도 있어요. 말씀을 체진 적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물으세요. “어제 네가 한 그 행동, 나에게 물어봤니? 너 어때니?” 그러면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송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더불어 지체에게 용서를 구해야하는 것도

“아니예요, 훈련은 오히려 온실 속이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 같고 닦은 칼을 쓰는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훈련을 받으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으로 전쟁터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이 전쟁터에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저의 무기죠. 아침에 일어나서 신랑과 말씀 묵상을 하고, 주님과 깊게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가요. 전쟁터에서 있었던 승리와 넘어짐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영원한 사랑의 복음 (5)

##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소망없는 영혼은 없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가장 불가능한 운명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주님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요 15:13~14). 주님의 이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고,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다. 주님은 이 사랑으로 교회를 초대하셨다.

###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 무엇보다 사랑의 속성(屬性)을 가장 많이 닮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랑 못 받는 사람은 불행하다.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사랑받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반대로 이 땅에서 죽도록 사랑할,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을 만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못할 사람은 없다. 존재



일라스트=노주나

적으로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사랑의 에너지는 더 구할 바가 못 된다. 문제는 사랑의 에너지의 방향이 바뀐 데 있다.

아담의 저주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자아 사랑'으로 대체(代替)했다. '자

아 사랑'은 참으로 끔찍하다. 망할 짓인 줄 뻔히 알아도 자기를 향한 사랑은 쇠하지도, 지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에너지를 발산한다. 정말 무서운 저주다. 사탄에게 붙들려 한 평생 병든 자아의 탐욕을 따라 존재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

녀 짓을 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 온 인류는 스스로의 종교적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이 무서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발적이며 기쁜심 뜻대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 은혜의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소망은 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겔 16:6) 구원을 부르짖을만한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갖지 못한 버려진 사생아 같았던 우리에게, 창녀 고멜까지도 끝까지 품으셨던 지독하고, 운명적이며, 무서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모든 소망이 끝나갈 무렵, 돌이킬 기회라고는 단 일 분도 남지 않았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우편 강도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가쁜 숨소리뿐이었다. 바로 그 때 오직 한 가닥 은혜를 의지했던 그 힘을 다해 외마디 비명처럼 외친 말은 '나를 기억하소서'였다.

### '나를 기억하소서'

“아름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동서남북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망할 이유가 쌓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어떤 영혼도 '끝났다'고 말해선 안 된다! (2017년 5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히브리어로 만나는 복음 (37)

### 하나님을 본 사람 '이스라엘(יִשְׂרָאֵל)'의 의미



사실 우리 개역 성경대로 '이스라엘'의 의미(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를 받아들이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창 32:28). 전능하신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싸워서 이긴 존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아마 충분한 언어학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진정한 설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과 관련한 또 다른 의미 있는 이름의 설명들이 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성경적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동사 형태로 보지 않고 앞 부분을 형용사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이스라(יִשְׂרָאֵל)' + '엘(אֱל)' 여기서 '이스라'는 형용사로 '곧은, 정직한 (straight, honesty)'이란 의미이며 '엘(אֱל)'은 '하나님'이란 뜻이다. 두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곧으시다'란 의미가 된다.

히브리 단어, '이스라(יִשְׂרָאֵל)'를 'יָשָׁר(yashar)'와 관련을 시켜 해석을 하는 것이다.

'יָשָׁר(yashar)' 정직한! 이런 경우는 야곱의 존재론적인 변화와 본문의 문맥과 딱 들어 맞는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곧으시니 더 이상 야콥(거짓말하다, 속이다, 굽다)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다. 그

래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견해를 많이 따른다. 이는 그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이스라엘의 애칭이, 신 32:15과 33:15, 26 그리고 사 44:2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중요한 단어는 '여수룬(יְרוּסָן)'이다. '여수룬'은 '이스라엘'과 단어쌍(word-pair)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수룬(יְרוּסָן)'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詩)적인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또 힘을 겨루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받은 그는 마땅히 이제 속이는 자 '야콥'이 아닌 '이스라엘'로,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가며 살아야 할 것이다.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런 관점에서 '여수룬'을 '하나님과 함께 바로서 있는 사람'으로 해석했다.

또 하나의 은혜가 되고 만족이 되는 설명은 '이스라엘(יִשְׂרָאֵל)'안에 특별한 동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이스라엘(יִשְׂרָאֵל)'이란 단어를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인칭을 나타내는 접두어인 '이(?)' + 동사, '스라(שָׂרָא)' + '엘(אֱל)', 가운데 단어인 '스라(שָׂרָא)'가 이럴 때는 '보다(see)'는 의미가 된다. '그가 보았다 하나님을'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필로

복음기도신문  
BIBLE & GOSPEL NEWS

“복음을 영화롭게하라”  
**GLORIFY THE GOSPEL!**

Text Book : 3만원  
EFL : 2만 5천원

헤브론원형학교와 헤브론교육선교대학이 복음스터디 수업에 사용한 영어 복음 교재가 출간됐다. 주교과서로 사용돼온 'GLORIFY THE GOSPEL! Text Book'과 영어교육을 위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재 두 종이. 집필은 헤브론 전략적 교육선교 공동체(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The textbooks used in Gospel Study class in The School, Hebron and Hebron Educational Mission College were published. These are the two main textbooks: 'GLORIFY THE GOSPEL!' and 'EFL textbook' used for English education. Each book costs 30,000 won and 25,000 won. 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 also joined to write it.

구입문의 Purchase  
야진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boaz.co.kr

(Philo)는 이스라엘을 '신적인 존재를 보았던 사람'으로 해석했다. 이스라엘은 '이쉬-라아-엘(ish-ra'ah-el,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의 축약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의심 없이 창세기 32:31에 바로 '브니엘(בְּנֵיֵל, 하나님의 얼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니!' 하나님

을 본 자,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만난 자!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면 감동과 열정으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보는 듯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GNPNEWS]

김명호 교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소장)



# 이웃을 사랑할 권리, 순종할 권리를 누리자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 어떤 사고의 변화를 경험할까? 기독교 학교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습하며 경험한 내면의 변화를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 요약문이다. <편집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을 망설이게 되는 때가 있다. 그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나의 권리, 자유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투쟁해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쿼터 행사가 대표적인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쿼터 행사는 자신들을 긍정하는 축제가 되고 노출이나 퍼포먼스는 사회의 틀에 대한 거부와 저항, 대항의 의미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자유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로 인한 삶의 방향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자유는 결국 내가 왕이 되는 자리,



일러스트=고은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베드로후서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벧후 2:19a, 새번역)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자유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ε'λευθερία(엘류테리아)이다. 자유분방, 방종,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자유란 의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

니 타락한 종, 묶여있는 신세였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진정한 자유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서 나온다. 내가 싸우고 투쟁해서 얻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진리에 있다.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 γινώ

σκω(기노스코)는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라는 의미다.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 8:36)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자리다.

진짜 자유가 이런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무엇일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많은 권리들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의 권리 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스스로 자신이 받을 상이 바로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인권을 내세우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 투쟁하며 자유를 원하는데 바울은 스스로 당연히 써도 되는 권리들을 포기한다. 바울에게 진정한 권리란 내 원함

대로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였다. 바울은 이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자리에 앉으실 권리를 포기하시고 순종의 자리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빌 2장).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이며 특권이다. 이제 내 차례다. 이웃을 사랑할 권리, 섬길 수 있는 권리,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순종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다. [GNPNEWS]

김서인(19)

###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 북한, 미국에서 자산 동결...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겹쳐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 관련 미국 내 자산 약 7400만 달러가 동결되는 한편, 설상가상으로 폐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대북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안팎으로 고난의 행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9일 ‘2018 테러분자 자산 보고서(2018 Terrorist Assets Report)’를 통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이란, 시리아, 수단,

북한 가운데 수단을 제외한 3개국 정부 및 이들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이 소유한 총 2억 16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북한 관련 자산 동결액은 7400만 달러로 전년인 2017년에 동결된 북한 자산액 6300만 달러에 비해 1100만 달러 증가했다.

### 북한 정권의 자산 동결은 중간 수준의 대북 압박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30일 RFA에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새롭게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총액은 1100만 달러지만 더 큰 금액을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해 북한 정권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군사통신 장비 생산업체인 글로콤폴이나 말레이시아 코리아 파트너 홀딩스(MKP) 등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면 동결액은 수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런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대북 압박을 강화했지만 최대한이 아닌 중간 수준의 대북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일시(출처: dailynk.com 캡처)

북한은 1983년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와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테러를 자행한 이유로 1988년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처음 올랐다가 2008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때 명단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 같은 해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 사건 등 지속적인 테러 활동으로 북한은 2017년 11월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30일 압록강 인접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보고한

이 질병은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무서운 돼지 전염병으로 사람에게에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았다.

외국 발생국에서는 100%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자강도 우시군 ‘복상협동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는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 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한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 몇 개월 만에 전체 돼지의 20% 가량이 살처분 됐다. [GNPNEWS]



▶ 핵무장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출처: SBS 화면 캡처)



## 성령의 감동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발견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성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붙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리도 없다.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하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요 19:11)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복된 일이며, 진리를 깨닫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훨씬 더 복된 일이다. 진리를 전해 듣고 깨달음을 얻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복을 누리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GNPNEWS]

<HOLY SPIRIT(2006), A.W.토저>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s

이미경 <사랑>

## 갈릴리 바닷가의 아침상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관계의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가?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가족 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이 질문에 한 작품이 떠올랐다.

이미경 작가의 <사랑>이다. 작가는 유명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였으나 육아로 인한 분주함 때문에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작업에 대한 열정과 육아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분투하다 비교적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재료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펜이었다.

작가는 붓 대신 가느다란 펜을 수천 번씩 그어, 인내와 수고로 빼곡하게 옛 모습들을 담아냈다. 주된 관심 대상은 지금은 좀처럼 찾

아볼 수 없는 것들인데, 시골 구멍 가게, 기와집, 반짇고리나 밥 등이다. 모두 따스함과 정겨움, 사랑이 묻어난다.

### 인내와 수고로 빼곡하게 그려 낸 사랑의 수고

특히 이 작품에는 사랑의 수고와 고스란히 전달된다. 소반 위에 있는 음식들은 보이지 않지만, 가지런하게 놓인 수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슬 밥과 촉촉한 김치를 떠올리게 한다. 순간 나는 냉전으로 얼어붙은 상대의 마음을 무장 해제할 강력한 무기를 발견했다. 따뜻한 한 끼이다. 나이 지긋한 노신사가 노모의 음식 앞에서 눈물을 푹푹 흘리는 장면을 보지 않았는가?

정성어린 음식은 그 자체로 사랑의 수고이자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손수 아침상을 차리실 때의 마음은 무엇인가? 만나를 배부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처럼 성경에서도 음식은 사랑의 상징일 때가 있었다. 조심스레 담은 고슬밥은 모양새만 봐도 즉석 밥과는 그 형태부터 다르다. 0℃ 국물 속에 잠긴 김치 포기를 꺼내느라 마디마디가 시렸을 그 손을 떠올려 보라. 남편들과 자녀들이 이 사랑의 수고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역시 사랑은 변함없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 작품설명: 이미경, <사랑>, 2015년, 아크릴 잉크펜, 50x50cm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젊은 엄마의 죽음을 경험한 나는 늘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

올해 들어 내게 정말 두려운 게 생겼다. 바로 죽음이다. 난 매일같이 심각한 뉴스와 극히 심해진 미세먼지를 보며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했다. 또 약을 먹고 있음에도 몇 달 동안 지속된 감기와 속 울렁거림 등 건강이 약해진 나를 보면서 '나 오래 못 살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애들은 엄마 없이 자라야 하는데...' 걱정을 하며 공포 속에 살고 있었다. 날마다 집안 곳곳에 소독약을 뿌리고 수시로 손을 닦고 아이들에게도 청결을 강요했다. 결벽증 환자와 다름없었다. 손에 각질이 일어날 정도로 소독약과 물을 만졌다. 자기 전에는 내일 내가 살아서 일어날 수 있을 까라는 두려움까지 들었다.

내가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도 그 유전을 받아 그 나이에 엄마와 같이 될까하는 공포 때문이다. 죽는 게 너무 싫고 무섭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며 내가 정해 놓은 사망날짜에 슬퍼하며 죽음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솔직히 세 아들을 돌보고 집안 일을 하고 시부모님과 삼촌들까지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미세먼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정 질병이 유행하면 전염을 준비하는 것처럼 긴장과 경계심을 장착하여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쉽

지는 않은 일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자주 화를 냈다. 분명 선교훈련, 기도훈련 등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 그야말로 절망이었다. 유명 설교자의 설교도 듣고 예배와 기도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그러다 지인의 조언으로 훈련과정에서 필기한 '하나님의 본심'을 몇 번 읽어보게 됐다. 노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사랑과 긍휼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문득 이 말씀에 아멘이 되었다.

###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마음속에 디자인 되었던 하나님의 원형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위해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믿어졌다.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지금까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내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고백하지만 고난받기 싫어하고 주님 없인 늘 두려워하는 존재가 나의 실상이다.



###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일러스트=이수진

정말 소망 없는 자다. 내 실상이 그러하기에 “주님만이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배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마 7:9~10)

나의 주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주님과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두려움이 있는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길 소망한다.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한다. 또 중보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뒤로한 채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며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너무 아까운 일이라고 깨달아졌다. 이젠 비겁하게 숨어있는 졸보가 아닌 골리

앗을 무찌른 다윗과 여러 번의 위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갔던 요셉과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것을 결단한다.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

보장된 이 싸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착각하여 내 뜻대로 행했던 것을 회개한다. 죽음 뒤에 영광과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이 죽음이 나의 삶에도 적용되어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느끼기를 기도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믿는다. 오로지 주님만 기대한다. [GNPNEWS]

강윤미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9. 5. 23 ~ 6. 6 (가나다 순)

### 개인

강성민 교회자 권순호 김경선 김성훈 김애심 김혜신 노은옥 박숙자 안민자 안수경 양애숙 유국주 윤경석 은종숙 이동희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진희 이흥우 장근해 정영숙 조정미 조명숙 조재순 조형광 차정규 최영신 무명

### 교회 및 단체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마중물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빛의열매학교 산곡교회 산물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썬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신한테크 양광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주석회사미션21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헬스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9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